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 2085호 2019. 6. 16.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제1독서 : 잠언 8,22-31
제2독서 : 로마 신자들에서 보낸 서간 5,1-5
복 음 : 요한 복음서 16,12-15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신부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4지구 사당5동 성당
전진 세례자요한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영광송? 주님의 기도? 성모송? 정답은 바로 성호경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첫영성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이기도 해요.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핵심이 들어있는 기도에요. 그럼 다 함께 잠시 성호경을 외워볼까요?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 이마에 성부와 가슴에 성자와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짚으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가 한 기도는 바로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저번 주에 대축일을 지낸 우리들의 보호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둘이나 셋이서 모인 곳에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자신과 같이 아끼시죠. 그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우리 자신이 다르지 않게 느껴지죠. 그 친구의 슬픔이 나에게도 그대로 다가오고, 그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즐거워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부모님을, 친구들을 사랑하듯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려요.

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

소금통

삼위일체에 포함되지 않는 분은 누구일까요?

① 성부 ② 성자 ③ 성모 ④ 성령

도란도란 성경여행

사무엘의 탄생1 (사무엘기 상권 1,1-5)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춥족의 라마타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프닌나였다.
프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 한나와 프닌나를 찾아보세요.

그림_ 송민경 도로테아

글/그림 이정현 베네딕토

◆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시편 23,1) ◆

우리들 솜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락동 성당 2학년
이윤아 이사벨라

'우리들 솜씨'는 **어린이,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부모님**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 글, 그림, 사진 등을 주보 앞면의 주소지 또는 스캔처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주보에 실린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복자 돋보기

복자 인언민 마르티노 (1737~1800년) / 신분: 학자, 양반

복자 124위 초상화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인언민 마르티노는 황사영 알렉시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접한 후 한양으로 올라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장남 요셉은 야고보 신부님 곁에 두고 차남은 다른 교우의 딸과 혼인시킨 후 집과 재산을 버리기까지 하였어요. 1797년 정사박해 때 체포된 그는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 나갔어요. 그리고 1800년 1월 9일 63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어요.

글_ 김연재 엘리사벳